

종합

55년 역사 뉴욕제과 최종 부도 7,200만원 어음 결제 못해...처리 방향 주목



55년 역사의 뉴욕제과가 지난 6월 22일 한미은행 안양지점에 지급 제시된 7,200만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결국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에 따라 이 업체에 원부재료 등을 공급하던 납품업자들은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해 채권 회수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뉴욕제과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회사 회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제과는 채권단에게 채권을 동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발생하는 거래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부도 전달인 6월 21일 김정기 대표이사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위기다.

뉴욕제과는 97년 141억원, 98년 130억원, 99년 127억원 등 IMF 외환위기 이후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토지공사에 안양 공장을 74억 6,400만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99년 12월 31일 현재 총부채(92억원)가 총자산(57억원)을 35억원 정도 초과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보고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회사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회사의 존속여부는 회사의 차기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약 20억원이다.

45년 작고한 창업자 김봉용씨가 서울 충무로에서 시작한 뉴욕제과는 국내 대표적인 제과점으로 성장해오다 지난 77년 4월 법인으로 전환,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했다.

80년대 말까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도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이후 파리크라상, 크라운베이커리 등 후발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선두자리를 내주었고, 결국 부도를 맞게 됐다.

〈손인수 insu21@mbakery.co.kr〉

신라호텔 내 제과공장 건설 100명 규모, 제과부와 별도 운영

신라호텔(www.shilla.net)이 올 9월 완공을 목표로 호텔 내에 제과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신설되는 베이커리 생산시설은 기존의 제과부와 별도로 운영될 예정인데 이 호텔은 지난해 안양시 관양동에 제과공장 설립을 추진했으나 어려가지 제반 여건이 미흡해 보류된 바 있다.

향후 신라호텔은 내년에 제과 사업부를 신설하고 연구개발실을 두어 베이커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한상 Jeong@mbakery.co.kr〉

전문 복합 컨소시엄 본격 시동 커피, 제과학원, 디자인업체 제휴

커피 원두 로스팅 업체인 커피 디랩(대표 박문환)과 한국제과기술학원(원장 채동진), 커피 머신 수입업체인 한국CMS(대표 연제성), 디자인 전문 업체인 엔토디자인 등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커피, 케이크 복합 점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커피 디랩은 원두 커피 추출법 등의 교육 및 원두 공급을 맡고, 한국제과기술학원은 채동진 원장의 주도로 케이크 제품을 제조·공급하며, 한국CMS는 커피 머신의 공급 및 A/S를, 엔토 디자인은 매장 CI작업을 담당한다.

컨소시엄을 총괄하고 있는 커피 디랩의 박문환 사장은 “새로운 소비 기호에 부응, 작은 규모라도 에스프레소 정통 커피와 고급 케이크를 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개사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인수 insu21@mbakery.co.kr〉

종합

케익하우스 엠마 佛 델리프랑스와 계약 냉동생지 독점 도입... '빠나미' 브랜드로 신점포 개설

케익하우스 엠마를 운영하고 있는 엠마상사(대표 김만희)가 세계적인 냉동생지 전문 생산업체인 델리프랑스사와 냉동생지 독점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 '빠나미(PANAMIE)'라는 새로운 브랜드의 점포를 오픈했다.

'빵과 여자'라는 뜻의 빠나미는 서강대, 건국대, 서울역 앞 대우빌딩, 서초동 등 4곳에서 문을 열었는데 평균 매장 규모는 약 30평이다.

이들 점포는 냉동생지 종류가 총 98가지에 이르고 전체 제품에서 냉동생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빵 60~70%, 케이크 20%에 달하고 있다. 엠마상사는 빠나미 매장 외에도 케익하우스 엠마 가맹점 6곳에도 델리프랑스사 냉동생지를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업체 김만희 사장은 "국내 몇몇 유수 업체도 냉동생지 도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델리프랑스사와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국 엠마상사로 낙찰됐다"며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점포를 육성하

기 위해 델리프랑스의 냉동생지를 들여오게 됐다"고 밝혔다.

엠마상사는 냉동생지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기존 인력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 인력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년 내로 모두 20개의 빠나미 점포를 운영하고 이들 점포의 일일 평균 매출을 200만원 이상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다.

자영제과점의 즉석 제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엠마상사가 냉동생지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자영제과점 업계에도 본격적으로 냉동생지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델리프랑스사는 프랑스 제분 대기업으로서 기능성 밀가루로 유명한 '그랑드몰랭 파리'의 자회사로 냉동생지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왔다.

이 업체는 1921년에 설립됐으며 일본에는 25년전 상륙한 바 있고 일본 양산 제빵업체인 아마자키와도 기술 제휴를 체결했다.

〈손인수 insu21@mbakery.co.kr〉

이커리인 '데이 앤 데이'는 지난 5월 30일 E마트 상봉점에 입점하면서 현재 총 21호점이 입점한 상태다.

E마트는 올해까지 총 31개점이 오픈할 예정이어서 '데이 앤 데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형석 ohs@mbakery.co.kr〉

이레, 델리베이커리 체제로 향후 직영·가맹점 개설도 계획

이레 베이커리가 매장 1층에 에스프레소바와 유러피안 샌드위치바를 보강하고 델리베이커리 체제로 새롭게 재정의했다.

델리베이커리는 조제(調製) 식품(점)을 의미하는 델리카테스(Delicatessen)과 베이커리(Bakery)가 접목된 형식으로 이레 베이커리는 아시아, 유럽 등지의 프랜차이즈업체 '델리프랑스'를 모델로 한국적인 델리베이커리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1차 단계로 샌드위치와 커피류의 테이크아웃(Take-out) 코너를 마련한 이레 베이커리는 앞으로 빵의 비중을 줄이고 조각 케이크, 페이스트리, 머핀, 도넛 전문 코너와 육가공품, 치즈·유제품류 등을 매장에 추가로 배치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레 베이커리 관계자는 "20대 여성이 주고객층이며, 고객들이 신선한 제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데 컨셉을 맞췄다"고 전하며 "향후 고객 모니터를 통해 반응을 살피고 개선점 등을 검토, 보완해 내년에는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인옥 inok@mbakery.co.kr〉

조선히otel 베이커리 사업 활발 달로와요, 데이 앤 데이 점포 확산

조선히otel(www.westinchosun.co.kr)이 베이커리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조선히otel 식품사업부가 운영하는 '달로와요'는 작년 8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1호점이 입점한 것을 시작으로 올 7월 1일에는 수도권 진출의 교두보로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2호점이 입점했다.

이 회사 식품사업부 김기석 과장은 "2001년까지는 서울과 지방에 걸쳐 총 7개점의 달로와요 매장을 입점시킬 계획인데, 우선 오는 8월 서울 강남 센트럴 시티에 3호점이 입점할 예정이고 나머지 4개점도 입점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업체가 운영하는 인스토어 베

학원 · 학교

기능장 36명, 기능사 4만 4,572명 취득 실업자훈련 시행 후 기능사 합격자 3배 이상 증가

99년말 현재 제과기능장은 36명,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총 4만 4,57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제과기능장 검정에는 1989년부터 총 245명이 응시, 36명이 합격했다. 제과기능사 검정의 경우는 1982년부터 총 6만 2,612명이 응시, 1만 6,758명이 합격했고 제빵기능사 검정에는 총 9만 6,731명이 응시, 2만 7,814명이 합격했다.

특히 제과·제빵기능사의 경우 최근 2년간 응시자수, 합격자수가 크게 늘어 97년보다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에는 합격률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IMF 이후 늘어난 실직자들이 정부 지원의 실업자직업훈련을 통해 제과제빵과정을 많이 수료했을 뿐 아니라 취업·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99년 제과기능장 검정에는 76명이 응시, 6명이 합격해 92년 이후 가장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6월 5일 합격자 발표된 2000년도 제3회 제과·제빵기능사 시험의 경우 제과기능사는 4,153명이 실기시험에 접수해 1,874명이 합격했고, 제빵기능사는 4,708명 접수자 중 2,375명이 합격하여 45~50%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옥/inok@mbakery.co.kr〉

■ 제과기능장 및 제과제빵기능사 응시, 합격 현황

(단위 : 명)

연도	제과기능장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82~83				347	35	10	617	37	5.9
84~91 (기능장은 89~91)	1	0	0.0	5,007	1,166	23.2	9,834	2,050	20.8
92~95	69	15	21.7	13,697	3,257	23.8	17,170	4,171	24.3
96	26	4	15.3	6,020	1,275	21.1	7,484	2,160	28.8
97	30	4	13.3	7,162	1,770	24.7	8,940	2,623	29.3
98	43	7	16.2	14,535	4,101	28.2	24,890	7,348	29.5
99	76	6	7.8	15,844	5,154	32.5	27,796	9,425	33.9
총계	245	36	14.7	62,612	16,758	26.8	96,731	27,814	28.8

〈강인옥 inok@mbakery.co.kr〉

혜전대 호텔제과제빵과 1년 신홍진, 양형근 학생과 이 학교 식품 연구소장 김애정 교수가 공동 출품한 '뽕잎 첨가 마늘빵'은 뽕잎의 단점인 풋냄새를 마늘 향으로 약화시킨 제품이다.

한편 뽕잎은 조단백질 25~35%, 조지방 3.5%, 조섬유소 10.7%, 회분 7.2%, 가용성 무기질소 54.4%, 조탄수화물 20.2%로 되어 있으며, 이노 작용, 항모 세혈관 투과 작용, 항알레르기 작용, 간보호 기능이 있다.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한미학원, 기능장대비반 모집

한미제과기술학원(원장 김영선)이 제과기능장 시험 대비반을 모집한다. 8월 13일 시행되는 필기시험에 맞춰 7월 중 시작되는 이 특강은 제과인 모임이나 단체(10명 이상)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시험 일정에 맞춰 이론과 실기 수업을 진행한다. ☎ 02) 957-6080

〈강인옥 inok@mbakery.co.kr〉

빵만들기 체험교실 횡수 늘려 크라운인스티튜트, 6월부터 월 4회로

크라운 인스티튜트는 지난 1월 개강한 '빵 만들기 1일 체험' 교실을 6월부터 월 4회로 늘려 운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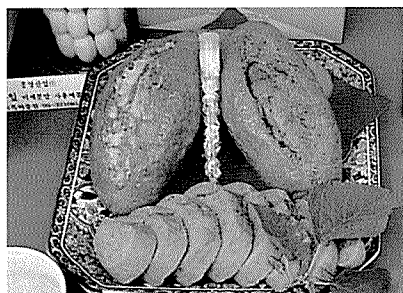
이 과정은 주부, 직장인들의 호응이 높아 매달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수업으로 늘어났다. 실습 제품은 매회 교체되고 1회 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 방법 및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www.crown-bakery.co.kr)에 게시된다.

☎ 02) 516-1717

〈강인옥 inok@mbakery.co.kr〉

혜전대, '뽕잎 마늘빵' 장관상 풋냄새 단점 보완, 최우수상 받아

혜전대학이 5월 26일 대한잡사회가 주최한 기능성 식품 품평회에서 뽕잎 마늘빵으로 120여개 출품작 중 최우수상인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원부재료

넛츠류 하반기부터 불안정한 장세 가격 20% 상승에 호두 수급 최악 예상

넛츠류 시장이 올해 생산량 감소와 재고 부족으로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 수급 불안정 등 불안한 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9년 아몬드 품작을 기록했으나 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계의 수요 폭증으로 현재 미국 산지의 작년 재고 물량이 23%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아몬드 생산량은 99년에 비해 최소 19%, 최고 2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몬드 가격이 인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수요 증가로 작년 12월 아몬드 가격이 20% 올랐으나, 재고가 소진되는 7월부터 가격이 강세를 보여 앞으로 10% 정도 가격이 추가로 오를 조짐이다.

호두는 장세가 더 불안정하다. 호두도 99년 품작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 현재는 미국 산지의 작년 재고 물량이 완전히 바

다난 상태이다. 호두의 올해 생산량도 작년보다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입된 물량도 일부 업체에만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과점에서 선호하는 밝은 색의 반데 호두는 5월부터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이며,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한 6월부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 일부 남아있는 물량이 완전히 소진되는 8~9월에는 호두를 전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수급이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넛츠류 시장은 수요 증가에 따른 재고 물량 부족에 올해 생산량 감소까지 예상돼 전체적으로 가격 면에서 15~20%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불안정한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를 판매하며, 앞으로 파베이크 냉동 생지(Par - Bake: 한차례 구워 다시 10분 내외만 구우면 되는 반제품)로 바게트의 수입도 타진 중이다.

수입 업체의 활발한 재료 수입은 취약 품목 강화와 고객의 재주문, 소량 판매 유망 제품의 확대에 따른 것이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기존 업체의 취급품과 중복돼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대두식품, 자회사 '화과방' 설립 7월부터 화과자·밤만주 생산 판매

대두식품(대표 조성용)이 자회사인 화과방을 설립했다.

지난 6월 대두식품 본사 부근에 별도의 사무실과 생산 시설을 마련한 화과방은 판매 상품의 제조 및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것이 마무리되는 7월 중 오픈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과방은 주력 품목으로 본사의 앙금을 이용한 화과자와 밤만주 등을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화과방은 과일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화과자의 경우 외피와 앙금에 제품 형태와 동일한 과일 맛과 향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밤만주도 제품명과 동일한 형태로 제작하는 등 제품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한편 화과방은 이들 제품을 기존의 대두식품 영업망을 통해 원하는 제과점에도 공급할 예정이나, 우선 제품 특성상 유통 기한이 짧아 판매에 유리한 편의점, 공항 매장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다시 불붙은 재료 수입 경쟁

7월 대거 출시, 프리믹스 주류

제과 재료 업체들이 하반기 들어 품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제원인터내셔널(대표 이우혁)은 7월부터 독일의 아벤 앤 쉐퍼사의 치아바타·크라프트콘 브룟트·멀티 그레이인·바게트 믹스를 판매, 기존의 마라톤·소야·식스 그레이인 믹스를 포함해 7가지의 제품을 구비함으로써 빵 믹스를 강화한다.

이 업체는 이외에도 헤이즐넛·애플 필링 믹스와 디저트, 조각 케이크용 요

거타르테 믹스, 칼라 초컬릿 장식물을 7월부터 판매하며, 미국 웨스트코사의 이스트 도넛·케이크 도넛 믹스 세미나를 개최해 시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활발한 품목 확대에 나서고 있다.

베이크플러스(대표 김웅일)는 7월 독일로부터 발효·향 촉진제인 말짚울민과 다크 사워 체리의 일종인 키르쉬 필링, 우박 설탕인 하젤 슈거를 판매할 예정이다, 유니온무역(대표 태양극)은 드라이스트의 수입을 검토 중이다.

선인(대표 이효구)도 7월 중 호주 베이클사로부터 컵케이크용 프리엔드 믹스와 인스턴트이스트인 베이킹 셰이프

기타

베이커리 3사 체육대회 개최 주재근·몽마·프랑세즈 화합다져



주재근베이커리·케익하우스 몽마·프랑세즈과자점 등 베이커리 3사 체육대회가 6월 12일 뚝섬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3사의 기술인들은 축구, 족구, 이어 달리기, 줄다리기 4개 종목에서 자사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합을 펼친 결과 주재근베이커리가 우승, 케익하우스 몽마가 2위, 프랑세즈과자점이 3위를 차지했다.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태인사니그룹 허영인 회장 사랑실천 공로 국민훈장 석류장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태인사니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보건복지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로 지난 6월 14일 여성복지의 날에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태인사니그룹은 98년 5월 이 사업을 후원하기 시작, 98년 5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3억원 상당의 식품을 기부했다. 〈손인수 insu21@mbakery.co.kr〉

삼성이벤트 파티용품 확대 전문코너 오픈 판매 본격화

삼성이벤트(대표 이재홍)가 방산동 본점 내에 파티용품 전문 코너를 오픈한다.

삼성이벤트는 덴마크 페이퍼 환타지사, 이태리 비보사로부터 하니콤, 가랜드 등 종이 제품과 컵, 냅킨, 테이블보, 삼페인잔 등 100여가지 디자인의 고급 파티용품을 수입해 대기업 외식사업부, 홈메이드베이킹업체, 일반제과점 등에 판매할 계획이다.

〈강인옥 inok@mbakery.co.kr〉

매일유업 서울사옥 이전

- 이전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빌딩
- 대표전화 2127-2114
- 특판과(6층) 2127-2150~3, fax 3675-6291
- 매일뉴질랜드치즈(11층) 2127-2296, 747-7984~7, fax 765-4867

겨봉기업 주소 이전

이전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81-17번지
전화번호 : 467-6807~8

협회소식

경기도지회, 임직원 단합대회 인준서·임명장 수여, 부지회장 선출



경기도지회(도지회장 조계중)는 6월 9일 경기도지회 산하 각 지부 임원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경기도지회는 각 지부장에게 인준서를, 지부 임원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임 도지회장 이덕주씨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지회는 도 부지회장에게 안양 이호식 지부장, 성남 조병희 지부장, 부천 김정인 지부장을, 감사에 군포·의왕시 지영식 지부장, 평택지부 김성환씨를 선출했다.

제8회 강원도 과업인 체육대회 4개 종목 경합 원주지부 우승

제8회 강원도 과업인 체육대회가 5월 28일 강릉시지부 주최로 강릉 신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강릉·속초·원주·춘천 등 4개 지부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체육대회에서 축구·족구·줄다리기·이어 달리기 시합을 펼쳐 원주지부가 우승을, 강릉지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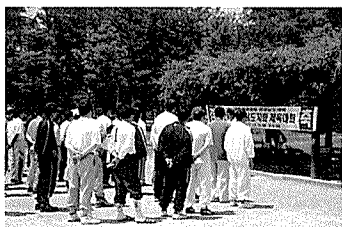
울산지회, 사무실 이전

울산광역시지회(지회장 안강운)가 6월 5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 사무실은 회원 성금과 관련 업체 협찬으로 마련했다.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6-6 ☎(052)268-4651

경남도지회, 체육대회 개최

10개 지부 참가해 단합 다져



달리기·윷놀이 시합을 펼쳐 종합 우승은 김해시지부가, 준우승은 마산시지부가 차지했다.

경남도지회(공삼포)는 5월 22일 창원체육공원에서 제2회 도지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각 지부는 족구·배구·이어

광주지회, 기술 세미나 실시

삼양사 후원 프리믹스 이용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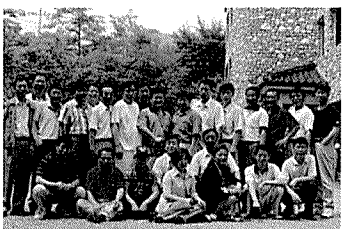
비스탐이 식빵, 옥수수식빵, 이스트도넛, 짬케이크 등 프리믹스 이용 제품을 선보였다.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김용관)는 6월 14일 광주 제과기술학원에서 기술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삼양사와 서울하인즈 기술 서

남부지회, 임직원 아우회

지회 발전 위해 노력하기로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남부지회(지회장 이경섭)는 6월 15일 장흥에서 임직원 아우회를 가졌다.

25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남부지회는 화합을 다지고 지회 발전을 위해

순천시지부, 정기총회 및 단합대회

박평주 지부장 유임, 임원진 개선

순천시지부는 5월 26일 수자원공사운동장에서 정기총회·단

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순천시지부는 박평주 지부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이기성, 이재철 회원에 도지회장상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순천시지부는 축구·배구 시합을 병행 개최해 회원의 단합을 다졌다.

▲부지부장: 양희건 ▲감사: 조경만, 정옥기 ▲이사: 이무현, 김종관, 이재운, 이인수, 김점섭

안양지부, 아우회로 즐거운 한때

임원·과우산악회 참가 회합다져



모래 강변 유원지에서 아우회를 갖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안양시지부(지부장 이호식)는 5월 23일 여주 신록사에서 하계 아우회를 가졌다. 지부 임원 및 과우산악회 회원 30여명은 여주 신록사 부근의 금모래, 은

남원지부, 제11차 정기총회

한계수 지부장 유임, 임원 개선



남원시지부는 5월 30일 제11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개선에서 한계수 지부장을 유임시켰다.

▲부지부장: 엄은규(나플레옹제과, 신임) ▲총무: 최병호(코리아제과, 유임) ▲재무: 장재규(프린스제과, 유임) ▲감사: 한승연(서부 태극당, 신임), 최학식(성우베이커리, 신임) ▲이사: 진수택(빵아저씨, 신임)

안산지부, 사랑의 빵 나누기

케이크 제공, 오락 시간 가져

안산시지부(지부장 홍순찬)는 6월 7일 장애인 재활 복지관에서 사랑의 손길을 펼쳤다. 이날 안산시지부는 80여명의 원생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 6월 생일을 맞은 원생의 생일 잔치를 했으며, 음료수와 빵을 나누어 먹으며 오락 시간을 가졌다.

<협회 소식 종합/ 박종선 sunpark@mbakery.co.kr>